

주요 내용

1. [고령 교인의 신앙생활 및 인식 조사]
71세 이상 고령 교인의 절반,
'건강이 허락하는 한 교회사역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2. 최근 조사통계 언론보도
 - 1) 2022년 추석 계획
 - 2) 이상기후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3. [넘버즈 칼럼] "한국교회의 다음세대는 고령세대다"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71세 이상 고령 교인의 절반, '건강이 허락하는 한 교회사역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제적인 노인의 연령 기준은 65세이다. 사실은 18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사회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 보험제도를 도입하는데 이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정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하니 130년 전의 기준을 아직도 따르고 있는 것이다.*

구구절절이 노인의 연령 기준에 대해 논한 이유는 100세 시대에 65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과는 다소 다르다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고령 교인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분에서 은퇴한 고령 교인들(71세 이상)은 '교회 사역 참여에 대한 적극성'(50%)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 능력을 갖고 있음'(40%)을 보여주고 있다. 고령자의 교회 사역 기회 제공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전략수립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넘버즈〉 159호는 최근 조사결과를 토대로 '고령 교인'들의 신앙생활과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고령교인'들을 이해하고 '노인목회' 전략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자료 출처 : 경기복지재단,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연령 상향조정 공론과 대응방안, 2016.01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령 교인의 신앙 생활 및 인식 조사

본 조사는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과 아드폰테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공동으로 기획한 것으로, 고령화시대에 점점 늘어드는 ‘고령 교인들의 신앙의식 및 실태’를 파악하여 한국교회가 고령교인 대상 목회 방향을 설정하고, 목회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다.

조사 개요

구분	내용
• 조사 대상	교회의 만 65세 이상 남녀 성도
• 조사 방법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조사와 종이 설문지 자기 기입식 조사 병행
• 표본 규모	2,045명 (유효 표본) - 조사 주체 기관에 속해있는 26개 교회 참여
• 표본 추출	편의추출 (Convenience Sampling)
•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 조사 기간	2022년 5월 18일 ~ 6월 28일
• 조사 주체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아드폰테스, 목회데이터연구소
• 조사 수행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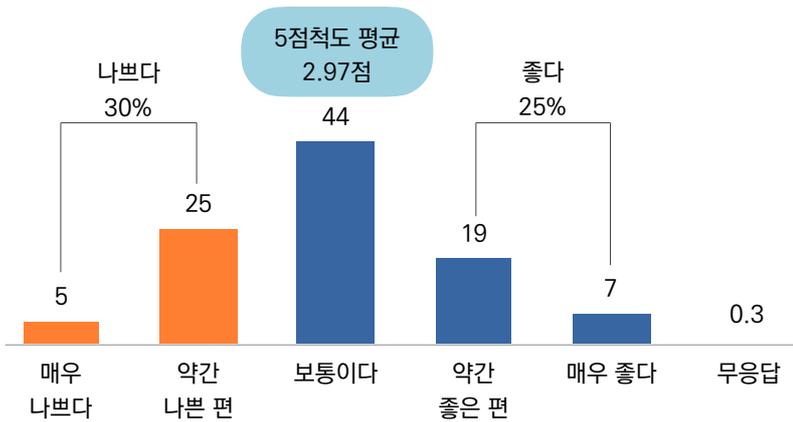
01

고령 교인 실태

① 건강 상태 : 10명 중 3명, '내 건강상태 나쁘다'!

- ▶ 65세 이상 고령 교인들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보통이다'가 44%로 가장 많았고, '나쁘다(30%)'고 인식하는 경우가 '좋다(25%)'보다 다소 높았다.
- ▶ 5점 척도로 보면 평균 2.97점으로 약간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건강 상태에 대한 자기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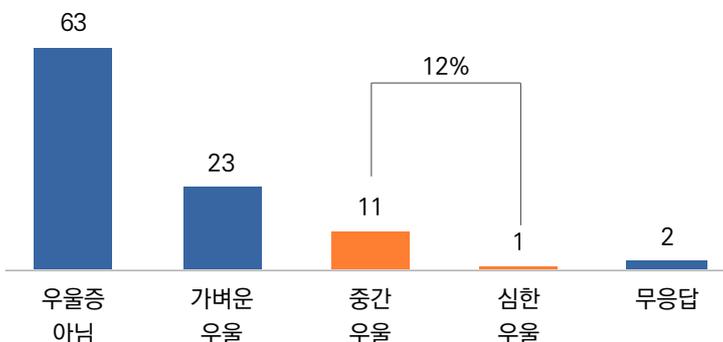
◎ 고령 교인 실태

② 우울 : 10명 중 1명 우울 증상 보여!

- ▶ 간단한 우울증 척도 9문항을 이용하여 '고령 교인' 대상 우울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우울감을 가진 교인(심한+중간 우울)은 전체 응답자의 12%로 나타났다.
- ▶ 우울감을 가진 고령 응답자는 적은 비율이나 우울은 자살 등 다른 파급효과가 크기에 이에 대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노인 문제에 대해서는 「넘버즈」 120호 참고할 것)

<참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2020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증상이 있는 노인의 비율은 14%임.
(두 조사는 문항과 척도가 달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움)

[그림] 우울 정도 (%)



[참조] 일반노인의 우울증상 비율**



14%

*우울증 척도 9개 문항을 제시(2주간 거의 매일 3점, 7~12일 2점, 2~6일 1점, 없음 0점)하여 합산점수를 다음 기준으로 '우울 정도' 측정함
(0~4점: 우울증 아님, 5~9점: 가벼운 우울, 10~19점: 중간정도의 우울, 20~27점: 심한 우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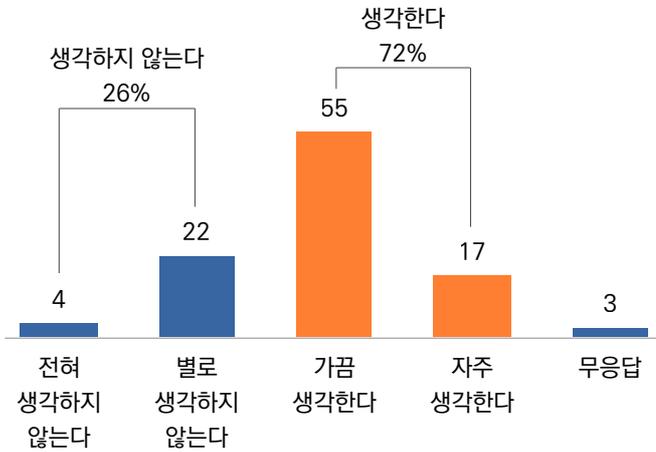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노인실태조사' (전국 만 65세 이상 노인, 10,097명, 대면면접, 2020.09~11)

◎ 고령 교인 실태

③ 죽음 인식 : 72%가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

- ▶ 고령 교인은 죽음에 대해서는 얼마나 자주 생각하고 있을까?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는 응답이 72%로 '생각하지 않는다' 27%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았다.

[그림]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빈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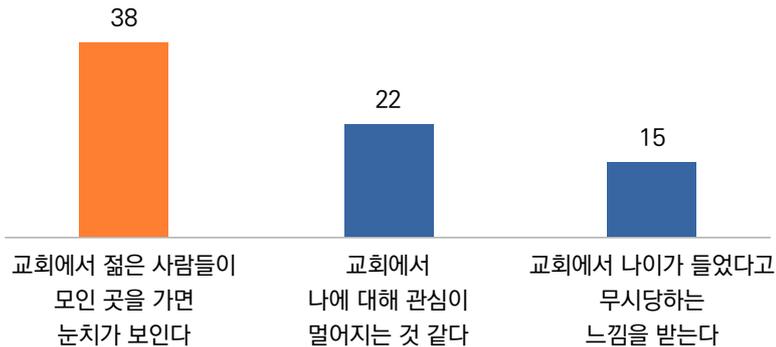


◎ 고령 교인 실태

④ 심리적 위축 : 40%가 '교회 내 젊은 사람 모인 곳을 가면 눈치보인다'

- ▶ 교회에서 고령 교인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지만 고령 교인들은 젊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스스로 위축감을 느낀다고 10명 가운데 4명 가까이 응답했다.(38%)
- ▶ 또 고령 교인 10명 중 2명 안팎은 교회에서 자신에 대해 관심이 멀어지고 있거나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 교인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요구된다.

[그림] 교회의 고령 교인에 대한 관심에 대한 인식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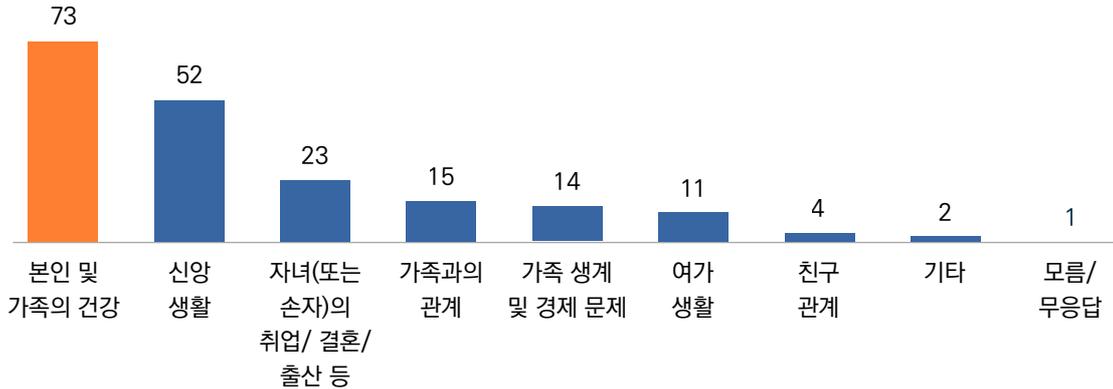
*4점 척도 질문으로 '그렇다(매우+약간)' 비율임.

02

고령 교인의 관심사 : '건강(1위)'과 '신앙 생활(2위)'

- ▶ 고령 교인들의 최대 개인적 관심사는 '건강(73%)'과 '신앙생활(52%)'인 것으로 조사됐다.
- ▶ 나이가 들어 몸이 노쇠해짐에 따라 '건강'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여가 시간이 많아지면서 '신앙생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요즘 개인적 관심사 (1+2순위, %)



03

고령 교인, '구원/영생을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비율 높아!

- ▶ 고령 교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로 '구원/영생을 위해서(60%)'를 가장 많이 꼽았는데 5060세대(50%)나 2030세대(33%)에 비해 '구원/영생'의 이유가 높은 것은 죽음에 가까운 시기를 맞아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진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 ▶ 그 외에 '마음의 평안을 위해(23%)', '인생의 진리를 찾고 싶어서(6%)' 등의 순이었다.

[그림] 신앙 생활 이유 (세대별, 상위 6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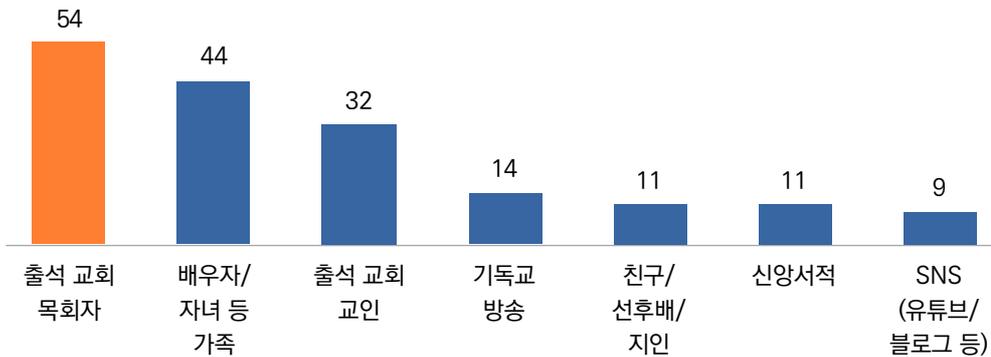
*50-60세대 조사(한국교회탐구센터, 오파세대의 신앙생활 탐구, 2021.12) (만 50-69세 개신교인 남녀 700명, 온라인조사, 2021.10.20.)

**20-30세대 조사(한국교회탐구센터, '코로나시대, 기독 청년들의 신앙생활 탐구', 2021.01) (전국 19-39세 기독 청년 700명, 온라인조사, 2020.12.30.-2021.01.05.)

◎ 신앙생활에 영향 주는 요인, '목회자'의 영향이 가장 커...노령 성도에 대한 관심 필요!

- ▶ 고령 교인들의 신앙생활에는 '출석교회 목회자(54%)'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가족'(44%)이었다.
- ▶ '목회자'의 영향력이 가장 크기에 목회자들은 더욱 노령층 성도 각각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돌봄을 위해 힘 쓸 필요가 있다.

[그림] 신앙 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 (1+2 순위, 상위 7위, %)



04

고령 교인 목회 방향

① 은퇴 교인의 교회 사역 참여 기회 제공

- ▶ 직분을 은퇴한 71세 이상 고령 교인들의 절반(50%)은 '건강이 허락되는 한 교회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리고 '아직 교회에서 일을 할 만큼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된다'는 의견도 40%나 응답됐다.
- ▶ 고령화 사회에서 은퇴자라고 하더라도 교회 인력 활용 차원에서 그리고 고령 교인들의 신앙생활 동기부여 차원에서 고령자의 교회 사역 기회 제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직분 은퇴 후 교회 역할 변화에 대한 인식

나는 건강이 허락되는 한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50%

나는 아직 교회에서 일을 할만큼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된다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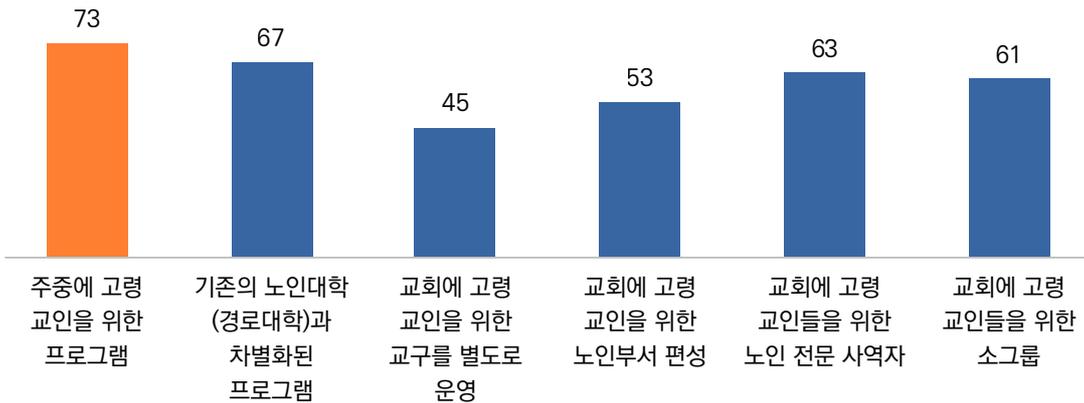
05

고령 교인 목회 방향

② 주중 고령 교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 ▶ 고령 교인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6가지 정책 항목을 제시, 각각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물은 결과, '주중에 고령 교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3%로 가장 높아 여가 활용, 교제, 배움을 위한 활동 욕구를 드러냈다.
- ▶ 그 외에 '고령 교인을 위한 전문 사역자', '고령 교인을 위한 소그룹' 등 제시된 모든 정책에 대해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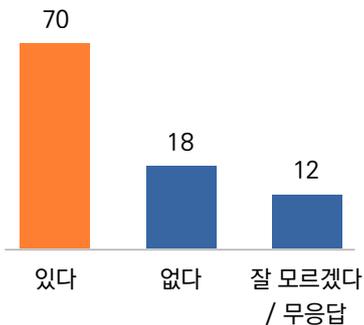
[그림] 고령 교인에 대한 교회 정책의 필요성 ('필요하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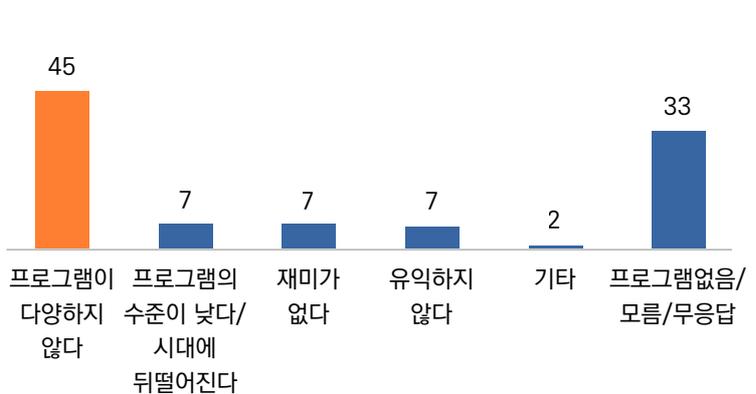
◎ 교회의 노인 프로그램 참여 의향, 70%! 그러나,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은 게 문제!'

- ▶ 출석 교회에서 고령 교인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하겠냐는 질문에 70%가 '있다'고 응답해 높은 참여 의지와 관심을 보였다.
- ▶ 다만,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은 점(45%)'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노인 프로그램 참여 의향 (%)*



[그림] 노인대학 성격의 고령 교인 프로그램 문제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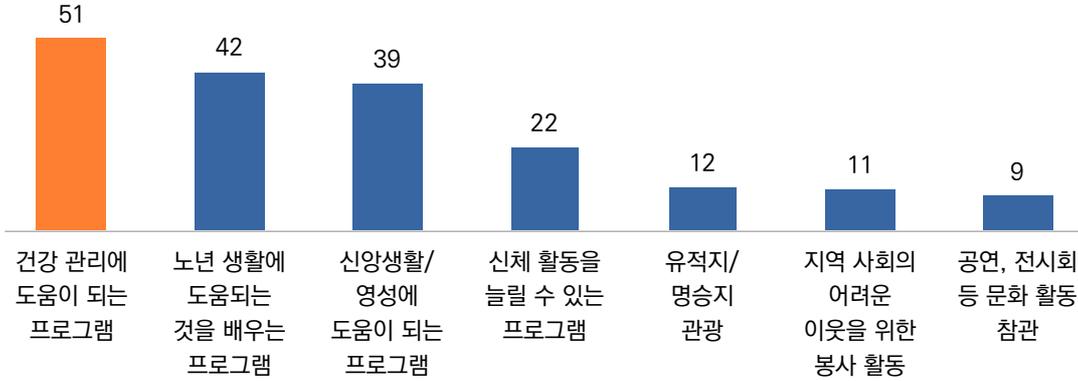


*4점 척도 질문으로 '있다(매우+약간)', '없다(전혀+별로)' 비율임

◎ 고령 교인이 희망하는 프로그램, '건강관리' 51%

- ▶ 그렇다면 '고령 교인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일까? '건강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노년 생활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 42%, '신앙생활/영성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39%, '신체활동 프로그램' 22% 등의 순으로 다양했다.

[그림] 고령 교인 프로그램 희망 내용 (1+2 순위, 상위 7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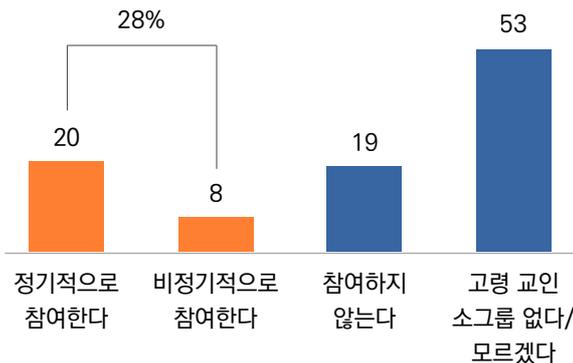
06

고령 교인 목회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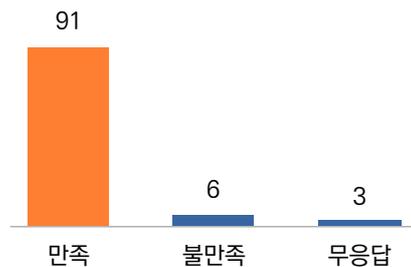
③ 소그룹

- ▶ 소속한 교회에서 고령 교인을 위한 소그룹을 운영한다는 응답은 47%로 절반이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그룹에 참여하는 비율은 전체 고령 교인 기준으로 28%이며 그 중 정기적 참여자는 20%에 지나지 않는다.
- ▶ 그러나 일단 소그룹에 참여하면 만족도는 91%로 매우 높아, 소그룹이 고령 교인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목회 프로그램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고령 교인 소그룹 참여 여부 (%)



[그림] 고령 교인 소그룹 만족도* (%)



*4점 척도 질문으로 '만족(매우+약간)', '불만족(매우+약간)'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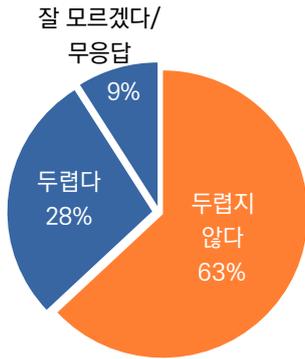
07

고령 교인 목회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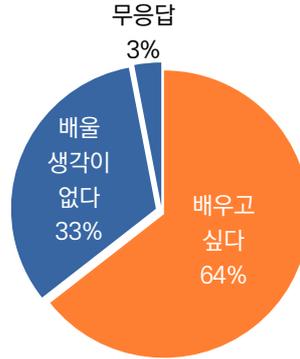
④ '죽음에 대한 강의/교육'

- ▶ 고령 교인들은 죽음을 많이 생각하지만(72%) 죽음이 두렵지 않다.(63%) 신앙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고령 교인들은 '죽음에 대한 강의나 교육'을 3명 중 2명(64%)이 '배우고 싶다'고 응답했다.
- ▶ 교회가 고령 교인을 위해 '죽음'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강의 및 교육(eg.연극, 가상죽음체험 등)을 개설해야 할 필요성을 알려준다.

[그림] 죽음을 두렵게 생각하는 정도*



[그림] 죽음에 대한 강의/교육 받을 의향



*4점 척도 질문으로 '두렵다(매우+약간)', '두렵지 않다(전혀+별로)' 비율임

한 국사회가 직면한 위기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이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에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6%이다. 전 인구에서 만 65세 이상 인구가 7%가 되면 고령화 사회, 14%가 되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일컫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 사회에 들어와 있다. 3년 후인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차지하게 되어, 드디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빠른 고령화 속도이다.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20년에는 OECD국가 가운데 28위였는데 2070년에는 46%로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령화 현상은 우리가 체감하듯이 사회보다 교회에서 더 심각하다. 2021년 말 기준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남녀 인구의 연령별 비중을 보면 60세 이상이 29%인데 반해 개신교인은 33%까지 올라간다.(한국갤럽) 현장예배 참여자 기준으로 보면 60세 이상이 39%로 고령화 정도가 더 심해진다. 성인 출석교인 3명 중 1명 이상이 고령 교인이 되는 셈이다.(기아대책/목회데이터연구소) 이제 고령 교인이 교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가장 많은 일을 감당하는 시대가 되었다.

노인이 되면 여러 가지 신체적, 감성적, 사회적 변화를 겪는다. 이 변화에 잘 적응하고 대응하면 행복해 지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면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노인이 맞는 첫 번째 변화는 건강의 변화이다. 나이가 들어 육체의 자연 수명이 쇠하면서 몸의 이곳 저곳 기능이 떨어지고 아프다. 그래서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고 여기저기 건강 관련 방송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정보를 찾아 다닌다. 둘째 변화는 사회적 변화이다. 우리나라 직장 정년 나이는 60세인데 은퇴는 개인의 사회적 존재 근거를 근본에서 흔들 수 있는 큰 변화이다. 게다가 노후 준비를 해 놓지 못한 은퇴자들은 생계를 위해 저임금 노동에 내몰리게 된다. 셋째는 심리적 변화이다. 사회적 은퇴가 되면 대개는 심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감이 가중되

어 이른바 노인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노화에 따른 뇌의 신경생물학적 변화도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을 크게 한다. 넷째는 죽음의 문제이다. 나이가 들어 죽음을 맞을 나이가 가까워지면 죽음에 관해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 종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

고령 교인들은 이러한 사회심리적 변화를 겪으면서 교회에 더 관심을 갖고 몰두하게 된다. 남은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삶의 의미를 찾고, 다양한 즐거움을 맛 볼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해답을 교회가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70세에 직분을 은퇴하는데 아무도 노인을 무시하지 않지만 노인 스스로가 은퇴 이후에 심리적 위축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5쪽) 그리고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므로 교회 사역을 여전히 하고 싶어하지만 70세 은퇴를 하게 되면 교회 일에 관여할 수도 없게 봉사의 기회가 크게 줄어든다.(7쪽)

이제 교회는 고령 교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관심의 방향은 두가지이다. 첫째는 노년을 무의미하게 소비하지 않고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을 도모하는 방향이다. 많은 교회들이 주중에 고령 교인을 위해 노인대학(경로대학)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프로그램이 단조롭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8쪽) 노인들은 건강을 비롯해서 상당히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다. 좋은 것 보여주고 맛있는 것을 대접하는 것만으로는 노인들의 다양하고 높아진 욕구를 채워줄 수 없다. 예전과 달라진 고령 교인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고령 교인들은 자존감을 높이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교회에서는 고령 교인들을 돌봄의 대상으로 여기고 편하게 모시려고만 한다. 하지만 고령 교인들은 편하게 있는 '뒷방 늙은이'로 남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액티브시니어(Active Senior)로 살기를 원한다. 그들이 교회에서 활동할 사역의

기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령 교인들이 교회에 기여하며 자존감을 높이고 스스로 주체적 존재로 설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은퇴 연령을 지키면서도 고령 교인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세심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것은 교회는 인력 활용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고령 교인이 행복해야 교회 행복의 총량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어나는 고령 교인에 대한 목회적 방법을 각 교회가 세워야 할 때이다.

고령화시대, 교회 내 액티브시니어를 얼마나 발굴하는가가 미래 교회의 또 하나의 관건이 될 것이다.

1.[2022년 추석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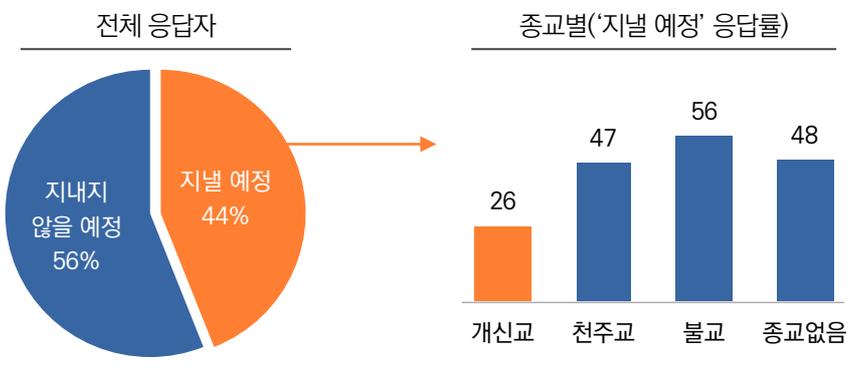
2.[이상기후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개신교, 제사를 지내지 않는 명절 문화 주도!

- ▶ 코로나19 유행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첫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추석 계획’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한국리서치)가 발표되었다. 차례나 제사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4%가 ‘차례/제사를 지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번 추석에 ‘차례/제사를 지내지 않겠다’는 응답은 56%로 절반이 넘었다.
- ▶ 이를 종교별로 살펴보면 불교인이 ‘차례나 제사를 지낼 예정’이라는 응답이 5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톨릭교인 47%, 개신교인 26% 순이었다. 개신교인이 타종교인/무종교인보다 훨씬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개신교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 명절 문화를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이번 추석 때 차례/제사 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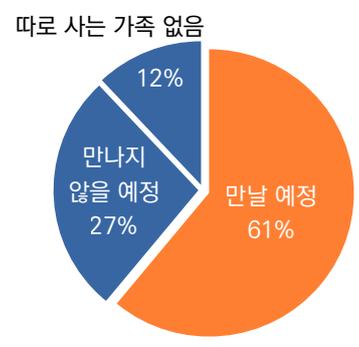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2022년 추석 모임 및 일정 계획, 2022.08.31.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2.08.2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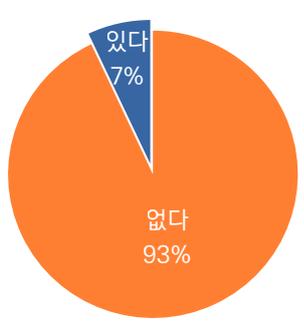
◎ 이번 추석 때 국민 대부분 여행 가지 않고 조용히 지낸다!

- ▶ 이번 추석 때 가족 방문과 관련, 우리 국민 10명 중 6명(61%) 정도만 ‘따로 사는 가족을 만날 계획이고, 나머지 39%는 그럴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 한편 이번 추석 때 국민 대부분(93%)이 여행 계획이 없이 조용히 지낼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이번 추석 때 따로 사는 가족 만날 계획



[그림] 이번 추석 때 여행(국내 또는 해외) 계획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2022년 추석 모임 및 일정 계획, 2022.08.31.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2.08.26~29)

가뭄, 홍수, 폭염, 산불, 물부족,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산불과 폭염, 집중호우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파프리카 소매가격은 평년 동기 대비 58%, 토마토는 57%, 간마늘은 42%, 배추는 54%, 무는 43% 각각 무섭게 상승했다. 각 가정마다 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넘버즈>에서는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에 대해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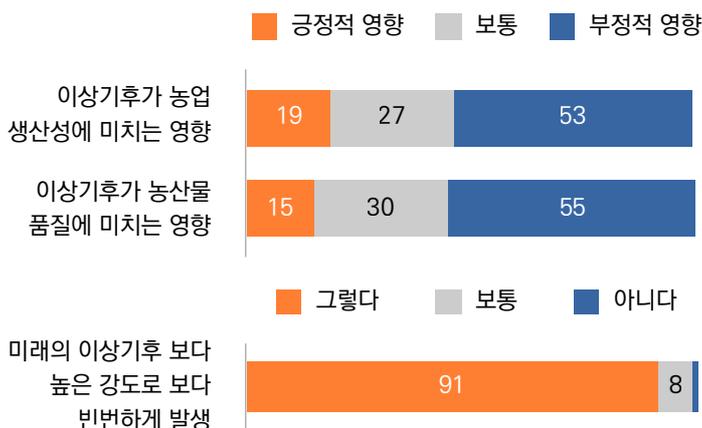
[그림] 주요 채소 가격 상승률 (2022년 8월 12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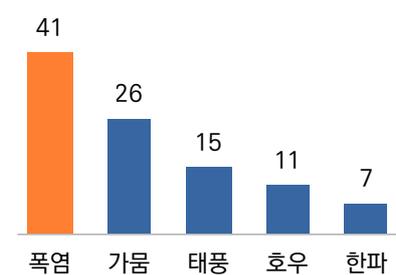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농민들의 생각, '앞으로 보다 높은 강도로 보다 빈번하게 발생할 것' 91%

- ▶ 농민들의 이상기후 인식을 살펴보면 '이상기후'가 '농업 생산성'과 '농산물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각각 53%, 55%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해, 긍정적 인식(농업생산성 19%, 품질 15%)을 모두 크게 앞질렀다.
- ▶ 대부분의 농민들(88%)은 현재 이상기후 현상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이 앞으로 보다 높은 강도로 보다 빈번하게 발생할 것(91%)이라고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한편, 농민들은 생산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상기후로 '폭염'(41%)을 1위로 꼽았다.

[그림] 이상기후에 대한 인식 (농업인 대상, %)**



[그림] 농업 생산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상기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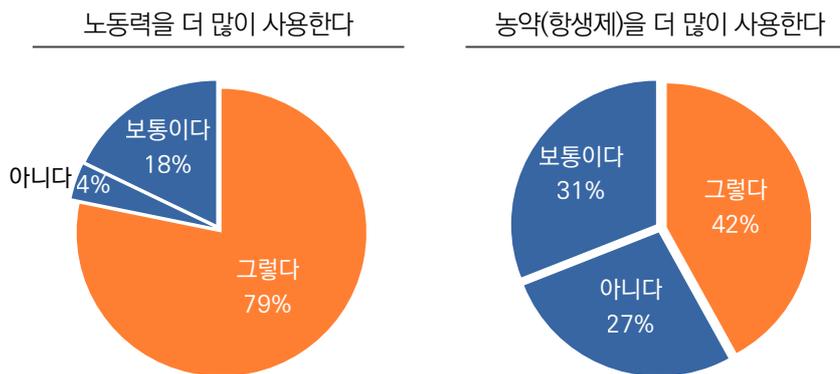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상기후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2019. 10(전국 715농가, 온라인 조사, 예비조사 2019.09.10.~15/본조사 09.17~30)

**5점 척도 질문으로 긍정/그렇다(매우+약간), 부정/아니다(전혀+별로) 비율임

◎ 이상기후 현상으로 '노동력/농약'을 더 많이 사용!

- ▶ 농민들에게 이상기후로 인한 병충해 혹은 가축 질병 등의 발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농약', '노동력' 사용이 평소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질문했다.
- ▶ '노동력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응답률은 무려 79%에 달했고, 농약(항생제) 사용량을 늘렸다는 비율도 42%로 나타났다. 이상기후가 노동력과 농약 사용량 증가에 미쳐 농가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이상기후 영향 인식** (%)



*자료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상기후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2019. 10(전국 715농가, 온라인 조사, 예비조사 2019.09.10.~15/본조사 09.17~30)

**5점 척도 질문으로 '그렇다(매우+다소)', '아니다(전혀+거의)' 비율임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10호\(2022년 9월 1주\)](#)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자유응답) 등

◎ 사회 일반

[세계인구 50년 뒤 103억 되는데...한국은 남북 합쳐도 6천100만명](#)

연합뉴스_2022.09.05.

["국민 74% 게임 즐긴다...자녀와 게임하는 부모 6년째 늘어"](#)

연합뉴스_2022.09.01.

[거주자 평균 54살, 점점 높아가는 반지하의 삶](#)

한겨레_2022.09.03.

[수도권 거주자 10명 중 3명 "지방 정착에 관심있다"](#)

연합뉴스_2022.08.30.

[기피시설 설치에 대한 인식](#)

한국리서치(여론 속의 여론)_2022.08.31.

[경총 "올해 추석연휴 휴무 시행 기업의 80.4%는 4일 쉰다"](#)

연합뉴스_2022.09.04.

[장애인 가족 절반 이상 "나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하층·중하층"](#)

연합뉴스_2022.09.04.

◎ 청소년 / MZ세대

[저출산 충격파, 학생 수 역대 최저...유치원은 98곳 줄어](#)

중앙일보_2022.08.31.

["넌 포기하지 않아" 보육원 나선 영진씨를 살린 한 마디](#)

국민일보_2022.09.01.

[한국의 10대는 70대보다 '체육 덜 한다' ...억눌린 생애주기](#)

한겨레_2022.09.01.

[기업도 총수도... 'MZ 탐구생활'](#)

국민일보_2022.09.03.

[\[영상\] MZ 직장인이 일하는 법? 미국 '조용한 사직' 신드롬 이유는](#)

연합뉴스_2022.08.31.

◎ 경제

[국민 61% "5년 전보다 경제 사정 더 나빠져" ...향후 전망도 비관적](#)

시사저널_2022.09.03.

[서민 장바구니 '빨간불'...먹거리 물가 8.4% ↑ 13년 만에 최고](#)

매일경제_2022.09.05.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기후 환경

[모두에게 닥쳐온 기후변화, 모두에게 같은 문제일까요?](#)

한겨레_2022.08.31.

◎ 건강

[의료 질 좋으면서 비싸지 않은 병원 찾으려면](#)

중앙일보_2022.09.05.

[한국인 45%는 영양제 챙겨 먹는다...3년새 13%p 증가](#)

연합뉴스_2022.09.03.

[고기 많이 먹고 운동 부족... 한국 젊은층 대장암 세계 1위](#)

조선일보_2022.09.05.

◎ 국제

[韓日 호감도 10년새 최고... 양국 국민 첫 동시 30%대](#)

문화일보_2022.09.01.

[한국인 10명 중 8명 “가짜뉴스 확산, 국가에 위협 된다”](#)

조선비즈_2022.09.01.

◎ 기독교 / 종교

[교인 78% “같은 물리적 공간”서 하나님 경험 중요”](#)

크리스천투데이_2022.08.30.

“한국교회의 다음세대는 고령세대다”

- 지역별 교구를 연령별 공동체로 전환한 사례 -

박영호 목사

(포항제일교회 위임목사,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원장)

1. 들어가는 말

포항제일교회(이하 본교회)는 2022년에 들어서면서 지역별 교구를 연령별 공동체로 전환하여 사역하고 있다. 전환 첫 해인 올해 각 사역이 활기를 띄고 있으며, 특히 72세 이상 그룹인 요한공동체가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본교회는 1905년에 시작하여 올해 117년 된 전통교회이다. 전임교역자 18명 포함, 전체 교직원 31명, 시무장로 23명, 은퇴 원로 장로 37명인 교회이다. 전통적인 지역교회로 2021년까지는 7개 지역별 교구가 있었고, 노년층이 많은 편이다. 2019년 가을에 삼공플러스 모임(만44세)을 시작했고, 2021년 1월에는 삼공플러스를 교구로 전환했다. 코로나 중이었지만, 삼공플러스 사역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2022년 3월부터 7개 지역교구를 4개의 연령별 공동체로 전환했다. 기대와 우려가 함께 하는 출발이었지만, 전체 교회가 잘 적응해가고 있고, 특히 72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요한공동체 목요모임에는 전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저녁예배의 2배 가량의 인원이 참석하는 등 활기를 더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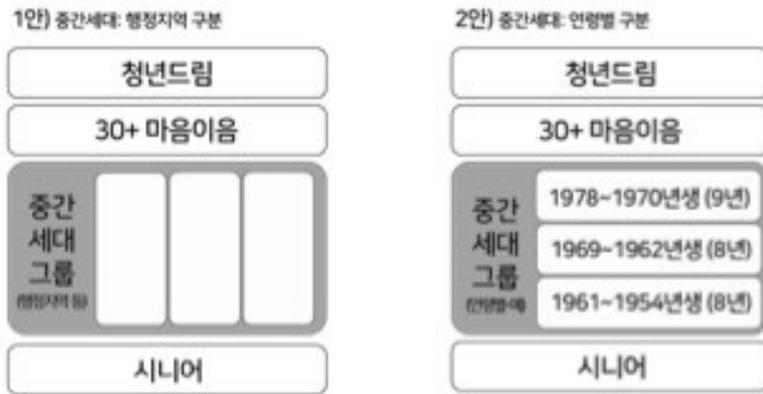
본교회도 막 시작하는 입장이라서 조심스러운 면이 있기는 하지만, 급변하는 사역환경과 코로나 시대의 도전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교회들이 많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나마 되기를 기대하며 전환사례를 나눈다.

2.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논의 과정

코로나의 위기감 속에 본교회는 장기적인 비전을 모색하고자 노력했다. 2021년에는 거의 매달 당회원 세미나를 가지며 교회 앞에 놓여있는 도전을 헤아리고 갈 길을 고민했다. 한동대학교 주재원 교수가 미디어에 관해, 광양 대광교회 신정목사가 애자일(Agile) 목회에 관해, 박영호 담임목사가 전환기 목회의 도전을 주제로 강의를 했다. 장신대 박상진 교수는 유바디 교육목회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교회학교와 교구를 통합하여 교회와 가정의 함께 협력하고, 다음세대 교육과 부모들을 위한 목회를 함께 하는 구조를 제안했다.^[1] 주일예배에 박상진 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여 전 교인들이 함께 비전을 공유하기도 했다. 당회 세미나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교회학교 부장 등을 초청하여 확대 세미나를 가지기도 했다. 모든 세미나는 주제와 강사를 후보에 게재하고, 대체로 전교인에게 개방하여 진행했다. 당회원이 아닌 성도의 참석이 많지는 않았지만, 당회가 고민하고 노력하는 주제를 성도들이 인지하고, 당회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 교회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라는 것을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세미나에서 공유한 내용 중 중요한 핵심은 설교나 광고 등을 통해서 전교인들과 지속적으로 나누었다.

2021년 6월말에 새가족 통계를 내어보니, 6개월 동안 등록된 가정의 압도적 다수가 삼공플러스였다. 2021년에 삼공플러스가 교구로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코로나를 겪는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이다. 이 통계는 세대별 모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기초가 되었다. 삼공, 사공 사역을 먼저 시작하여 성공적으로 안착한 교회들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는데, 대 다수의 교회들이 삼공, 사공 사역의 경험을 살려 노년 교구를 독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당회는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교구 개편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시작하면서는 삼공플러스 중심으로 교회학교와 교구가 함께 동역하는 것과 실버 교구 독립이 목표였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체 교구를 연령별로 편성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도 도출되었다. 연구소위는 두 안을 당회에 보고하였고, 수차례 논의를 거치면서 전체를 연령별로 재편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 과정에서 전체 교인들의 데이터를 놓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거쳤다. 삼공플러스가 활발하게 모이는 것을 부러워하는 성도들이 “우리도 오공플러스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던 의견들이 참고가 되었다. 아래와 같이 공동체를 편성했다. 다니엘과 마태는 첫째 자녀의 학년이 중심이 되고, 마가, 누가, 요한은 부부의 경우 나이가 어린 쪽을 기준으로 했다.

2022년 공동체 변경안					
청년	30+	중간그룹 : 연령별			시니어
청년드림	다니엘공동체	마태공동체	마가공동체	누가공동체	요한공동체
청년 (35세 이하)	미혼 (36세~45세) 신혼 자녀 (초등학생까지)	55세까지 (68.12.31) (고등학생까지)	56세~63세 (67.1.1~60.12.31)	64세~71세 (59.1.1~51.12.31)	72세 (51.1.1~)

3. 중요한 원칙들

가. 공동체성 강화

“교구(diocese)”는 로마 가톨릭의 지역 조직을 개신교가 차용한 것으로, 위계적, 하향적 문화, 관리의 뉘앙스가 강하다고 판단했다. “공동체”라는 말에 보다 관계 중심, 교제와 사역을 강조하는 소망을 담았다. 전환한지 수 개월만에 장례 등의 상황에서 서로 돌아보고 위로하는 밀도가 지역별 교구 때보다 더 높아지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공동체 안에 어려운 가정이 있을 때는 온 공동체가 힘을 모아 몸으로 돕는 일도 생겨나고 있다.

각 공동체는 교회 행사, 예배 주관 등 교회 전체 사역을 돌아가면서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지난 삼일절 예배는 마태 공동체 주관으로 드렸고, 올 성탄절 예배는 다니엘 (삼공), 요한 (70대 이상)이 공동주관으로 할 예정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대 간의 자연스러운 소통과 협력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세대간 교류 역시 공동체가 연령 기준으로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한 번 정해지면 이사 가지 않는 한 고정되어 있는 지역별 교구에 비해서 더 많은 교우들과 친분을 쌓을 기회가 주어지는 면도 있다.

나. 평신도 주도성

교회의 5대 사역 중에서 예배와 양육을 중심축으로 보고 이는 교역자들이 주도하고, 교제와 선교 봉사는 평신도들의 참여와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다. 각 공동체별로 담당교역자들, 담당장로, 기획팀, 사랑방 목사 중 임원들이 이끌고 있다. 여성도들이 사랑방의 목자를 많이 하고 있기에, 기획팀은 목자의 남편들이 하는 경우가 많다. 안수집사나 집사들 중에 열정이 있는 성도들이 창의성과 에너지를 쏟아낼 수 있는 장이 되고 있다. 50-60대의 많은 성도들이 청년부 때 임원 등으로 공동체를 이끌며 부흥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그 때의 일을 어제처럼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있다. 공동체의 문화는 기존의 교구와 예전의 청년부의 문화, 중간쯤에서 형성된다고 보면 된다.

다. 선교적 역동성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는 시대의 과제이다. 프로그램 중심이 아닌 선교적 민감성(missional sensitivity)를 가진 선교적 삶(missional life)를 목표로 해야 한다. 연령별 공동체는 선교적 삶을 일상에 착근시키는데 유리한 구조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교회는 선교, 이웃돕기 프로그램은 많지만, 교회가 재정을 지출하는 정도이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기쁨을 맛보고, 선교적 삶을 익혀가는 기능은 약하다. 전통적으로 한국교회는 남선교회와 여전도회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해 왔지만, 최근 들어 눈에 띄게 약화되고 있다. 소그룹(구역, 셀 등)등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회도 있지만, 소그룹은 서로 돌보는 일만으로도 힘에 겨운 경우가 많다.

선교적 역동성을 살리기에는 50명 -100명 안팎의 중그룹이 가장 유리하다는 것이 많은 사역자들의 경험치이다. 교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한 공동체의 구성원들, 혹은 열정적인 교인들, 혹은 목자들의 모임이 이 정도 범위에 속하게 된다. 지역의 선교적 필요에 민감한 성도들이 소그룹이나 중그룹 단위에서 다양하고 실험적인 선교를 시행하고, 이러한 선교사역이 교회 전체에 나누어지는 과정에서 선교의 큰 흐름이 결정되는 상향식(bottom-up) 선교는 전통적 구조를 가진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체질이 변화 되어가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다.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선교위원회나 당회가 전교회의 역량결집이 필요한 일은 계속 해 나가되, 가급적이면 소그룹이나 중그룹 단위에서 선교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소박하게 시행해 가면서 교회가 관심을 갖고 지원하며 힘을 모아가는, 민첩한(agile) 선교전략이 필요하다.

4. 고령목회의 사회적, 이론적 맥락

본 교회가 고령목회를 준비하면서 연구하고 공유하면서 성도들의 뜻을 모아 갔던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가. 초고령화 사회, 한국교회는 준비되어 있는가?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7%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가 넘는 사회를 '초고령 사회(post-aged society)'라고 한다. 한국은 2021년 기준 고령자가 16.5%를 차지하고, 2025년이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후 불과 25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독일은 77년, 미국은 88년, 프랑스는 143년 걸렸다.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일본도 35년이 걸렸는데, 한국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속도로 초고령화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를 보면 연금문제 등, 급속한 초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에 총의를 모아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셈이라 할 수 있다. [2]

한국 교회는 준비되어 있는가? 『2030 축의 전환』에서 마우로 기옌은 세대별 특징을 강조한 책들은 특성상 과장되기 쉽다는 점을 지적한다.[3] 특별히 기업의 입장에서 MZ 세대의 중요성은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평

가한다. <<포브스(Forbes)>>는 2018년에 “노령화는 기업에 축복이다”라는 특집을 실었다. “노령화는 준비된 기업에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코노미스트 역시 나이드 소비자들의 영향력에 대한 기사를 연이어 내어 놓고 있다. 물론 한국의 경제상황과는 다르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2021년 12월에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센터가 내놓은 『2022 대한민국이 열광할 시니어 트렌드 - 새로운 소비권력 5070의 취향과 욕망에서 찾은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이면서, 기업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도전이라 할 수 있다. 한국교회는 준비되어 있는가?

나. “나이듦(aging)”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다음세대”의 중요성을 오랫동안 강조해 왔다.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라는 추세와 기독교의 메시지와 문화가 젊은 세대에 매력을 잃어가는 상황, 탈종교라는 시대의 흐름 등을 감안할 때 교회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는 영역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대처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10년, 20년 이후 교회 구성원의 다수가 노년세대일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 세대는 오랫동안 교회의 예배와 사역, 헌금을 신실하게 지켜 온 이들이다. 코로나의 도전은 이 연령층의 변함 없는 헌신이 한국교회의 든든한 자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는 노년세대입니다”라는 선언을 수차례 설교를 통해서 전했다. 반응은 뜨거웠다. 교회와 사회에서, 가정에서 알게 모르게 소외되어 있다고 느끼고, 위축되어 있던 세대들이 다시 교회의 중심임을 확인하면서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다.

이번 조사도 고령교인의 대다수가 교회가 다음세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공감하면서도, 다음세대와 젊은세대가 목회의 초점이 된다는 느낌을 갖는다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교회의 배려와 목회자들의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대목이다.

표현의 변화로만 부족하다. 노년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되돌아 보는 성찰이 필요하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UCSF,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의과대학의 교수인 애런슨의 『나이 늙에 관하여』는 2019년 출간되자마자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이 땅에 많은 소아과가 있는 이유는 아이들의 몸이 성인의 몸과 다르기 때문이다. 노인의 몸도 건장한 성인의 몸과 많이 다른데, 노인과는 보기 힘든 이유는 노인에 대한 무관심이자, 심각한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노인들의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쉽게 “퇴행성”이라는 진단을 붙이는 의료계의 관행 역시 비판한다. 당연히 기울어야 할 관심과 섬세함이 결여된 게으름이자, 노인의 몸에 대한 차별이다. 노인들은 나이듦을 부정적으로 보는 문화에 대해 저항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자신에게 내재된 노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견어낼 수 있어야 한다.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은 고령사역의 조건이자 목표이다. 시카고대학교 법학과의 마사 누스바움과 솔 레브모어의 『지혜롭게 나이든다는 것』은 카토, 세네카, 셰익스피어 등의 고전과 현대의 법적, 경제적 문제까지 아우르는 시각으로 노화에 대한 인문, 사회학적 통찰을 제공한다.^[4] 노화라는 객관적 한계를 인정하고, 변화하는 삶에 적응하며, 자신의 존엄을 유지하고, 노화에 대한 사회적 낙인에 저항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노년기에 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자각과 연대가 노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개선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한다.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였던 도널드 캡의 『열 번의 성장』은 인생을 십년 주기로 나누어 각 시기의 성장과제를 제시한다.^[5] 우리는 60대와 80대를 “노인”이라는 한 범주로 구분하는 것에 익숙하지만, 사실 이 그룹의 차이는 지대하며, 80대 이상이 되어서도 여전히 활발한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들은 본교회의 노년사역 비전을 형성하고, 그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

다.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전도서 3:11]” 는 말씀을 중심으로 온 교우가 인생의 모든 시기를 사랑하며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삶을 비전으로 공유했다. 노년의 시기는 좋은 신앙의 유산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 긴장하고 헌신해야 할 세대라기 보다는 주어진 오늘을 행복하고 활력 있게 삶으로서 후배들에게 살아 있는 모범과 소망이 되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다. 누구나 노년이 될 것이므로!

5. 요한공동체 준비와 출범

전체적인 비전을 나누면서 요한공동체 출범을 위한 가능성 모색을 해 나갔다. 2021년 6월에는 이계호 교수를 모시고 건강특강을 했고, 11월에는 트로트로 유명한 구자역 목사 초청 음악회를 열었다. 그 후에 본교회 중보기도 훈련인 “기품(기도로 품습니다)학교” 6주간의 과정을 70대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과정은 요한공동체 출범을 위한 준비과정이라기 보다는 독립된 교구로 출범을 하면 어떤 느낌일가를 맛보는 (sense) 기회였다. 고령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리더십 입장에서도 그랬다. 기품 훈련 중간 쯤에 모인 분들을 대상으로 70대 이상의 교인들의 대상으로 하는 간단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공유가 되었고, 또 이 때 실시한 행사들의 반응이 좋았기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과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소수의 염려하는 목소리들도 있었다. 오랜 교회생활의 경험에서 나온 합리적인 의견들이었다. 교역자들이 그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경청했고, 가능한 부분들을 반영하여 요한공동체 출범을 기획했다.

연말 정책 당회에서는 요한공동체에 파격적인 예산, 인력을 배정했다. 이미 고령교인들을 위한 사역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정 가능했다. 네 명의 교역자를 배치했고, 헌신된 목자들 50대, 60대, 70명이 헌신했다. 기존의 사역과 고령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의 상이점들을 공유하고, 앞선 다른 교회의 사례들도 들으면서 헌신에 구체성을 더해갔다. 요한공동체 목자들을 대상으로 2박 3일의 수련회를 계획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해야 하는 아쉬움 가운데 사역의 뜻을 올렸다.

초기에는 담임목사가 직접 설교/강의를 하기로 했다. 액티브 시니어, 혹은 오파 세대 (Old People with Active Lives)의 눈높이와 감각에 맞추어서 섬세하게 조율하고자 했다. 인문학적 통찰과 성경의 메시지를 아우르는 강의로 “인간이란 무엇인가?”로 정했다.

첫 강의를 “호모 루덴스(유희하는 인간)”로 하면서 요한공동체의 가치설정을 보여 주고자 했다. 놀이가 인간의 본질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삶의 본령이라는 도전은 평생 근면하게 절약하며 살아왔고, 경건한 몸짓 만이 교회에 어울린다는 고정관념 속에 살아오던 어른들께 해방감을 안겨 주었다. “잘 노는 노년”이라는 이미지는 건강한 일상문화, 기독교 문화의 창출과 향유라는 큰 방향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요한공동체의 다양한 소그룹 활동들이 이런 삶을 지향한다.

포항제일교회		요한공동체 목요모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12시 3-6월, 9월-11월		
목요모임	담당	운영방법
찬양	요한찬양단	동아리 활동으로 찬양팀 구성
기도	대표기도자	원로, 은퇴 장로 포함
말씀	담임목사님	주일설교 말씀을 시니어에 맞게 재해석
사랑방모임	목자	매주 사랑방 모임을 갖고, 서로의 삶을 나눔 사랑방 질문지 참고하여 나눔
동아리 활동	전문강사 및 스태프	16개반 운영 운영목표: 시니어의 취미활동을 확대하고, 심境的 자리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목자반	공동체 목사	목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사랑방 구성원들을 보살핌

포항제일교회				요한공동체 목요모임 - 동아리			
생활 & 건강		취미활동		성경과 봉사		신앙&경건	
스마트폰 활용 실버제조		바리스타 꽃꽂이 서예&수묵화 입화반 게이트볼 탁구 오카리나		예배찬양팀 복음송배우기 선교언어		성경기도 성경디딤돌 성서지리 신학이 있는 묵상	

6. 고려할 점들

1) 팀 사역의 강점

본교회의 다니엘공동체는 교육부의 전임교역자까지 합쳐서 다섯 명, 마태공동체는 세 명, 요한공동체는 네 명이 섬기고 있다. 한 명이 담당하던 지역별 교구사역에 비해서 교역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섬기면서 시너지가 생기는 것이 확연히 보인다. 지역별 교구 체제에서는 여성교역자들에게 교구를 담당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문화적 한계가 존재했다. 그러나 팀사역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여성사역자들의 공간이 생기고, 그들의 은사가 장점으로 작용하는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영상과 온라인 사역 등의 비중이 커지면서 기존 교구 사역에 더하여 이러한 사역을 담당할 인력의 필요를 느끼는 교회들이 많다. 그러나 교회의 인력충원은 여러가지 부담으로 다가온다. 어렵사리 영상 담당 교역자를 임명해도 전통적 목회사역에서 소외되면서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기도 하는 상황이다. 공동체 중심의 팀 사역은 영상 뿐 아니라, 상담, 교육, 디자인, 장애인, 선교 등 직능 중심의 사역자가 적절하게 목회적 돌봄과 양육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장점이 있다.

2) 양육훈련의 새 패러다임

80-90년대에 한국교회에 도입된 제자훈련의 열정이 시들해지는 경향이 보인다. 기존의 양육훈련을 연령별로 세분화된 그룹에 적용하며, 인생 발달 과정에 맞게 접근하는 것은 양육의 새 패러다임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교회 사역에 영향력 문제

장로교회의 경우 대다수 교회의 리더십은 60대 남성에게서 나온다. 이들의 경험과 헌신, 리더십이 교회사역의 안정적인 기초를 제공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세대 간의 문화차이가 커지고 변화가 급속해 지면서, 성도들의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고, 교회 바깥의 세계와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다. 선교초기에 선진문화를 주도하던 교회가 어느새 문화적으로 낙후된 집단으로 인식된 것은 교회 내의 소통부재와 편중된 리더십의 문제이기도 하다.

은퇴한 중직자들의 영향력은 이런 문제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 교인들은 오랫동안 교회 일에 영향력을 발휘했고, 존경 받아 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발언권이 강한 편이다. 교회들 마다 이들 그룹이 급속히 늘고 있다. 예전에 10여 명의 시무장로가 있던 교회에 은퇴 장로는 2-3명이었다면, 이제는 10명의 시무장로에 은퇴 장로가 20-30명이 되는 시대가 눈 앞에 다가오고 있다. 은퇴한 중직자들의 발언권이 적절히 조율되지 않는다면, 교회 리더십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염려하여 본 교회도, 만 70세 되는 해 연말에 은퇴하는 순간, 모든 사역을 내려 놓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 왔고, 은퇴한 분들은 교회사역의 방향에 대하여 의견 표명을 자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 왔다.

이러한 분위기는 적극적으로 고령교인사역을 하는 데 걸림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 때문에 고령교인 맞춤형 사역을 미루기에는 교회가 잃는 것이 너무 많다. 문제는 문제를 직시하고 밝은 빛 아래로 가져 올 때 최소화된다. 목회자와 당회가 교회의 중심을 견고히 유지하면서도, 모든 세대, 모든 계층, 남녀 성도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구조와 문화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런 맥락에서 고령교인들의 의견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반영하는 틀과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4) 거리와 교회 규모의 문제

포항은 도시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연령별 공동체로 전환하기가 용이한 편이었다.

서울이나 수도권 등, 원거리 교인들이 많은 경우 지역별 교구의 장점을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럴 경우 교구(공동체)는 연령별로 하고, 그 안에서 구역(소그룹)을 지역별로 편성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중그룹은 장소 관계상 교회건물 밖에서 모이기는 쉽지 않다. 가정이나, 식당, 카페 등에서 모이는 소그룹은 지역이 이점이 많다. 본교회도 사랑방 편성이 첫째 기준이 연령, 둘째 기준이 지역이다. 본 발표가 “사례” 발표이기 때문에, 본 교회와 비슷한 규모의 교회에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는 나름의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연령별 공동체의 필요성과 고령교인 사역의 필요성은 다르지 않다.

5) 선교적 삶으로 성장하고 싶은 소망

본교회의 요한공동체 사역은 초기이지만, 선교적 역량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섬김으로 나아가고 싶은 소망이 있다. 이는 공동체의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예를 들면, 목요모임 활동을 통해서 바리스타 훈련을 받은 분들이 교회의 행사나 선교활동 등에 참여하는 식이 될 것이다.

7. 나가는 말

사도 바울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에베소서 5:10]” 고 했다. 주를 기쁘시게 하겠다는 목표는 변함없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는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정답을 알지 못하며, 찾아가야 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흔히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방향은 어떤 방향인가? 마라토너가 42.195km를 뛸 때처럼, 처음 정한 목표지점을 향해 그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가? 아니면 미식축구 선수가 공을 들고 뛸 때 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지형, 갑자기 닥치는 장애와 새롭게 열리는 기회를 염두에 둔 방향인가? 코로나19의 도전은 우리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변하는 상황에 살고 있는가 하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었다. 지역별교구를 연령별공동체로 바꾼 것은 변하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면서, 교회의 본질에 가깝게 다가가려는 한 시도일 뿐이다. 목회에서 정답은 없다.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찾아가는 사람들일 뿐이다.

[1] 박상진, 『유바디 교육목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 2020).

[2] 조영태, 『인구 미래 공존 - 인구학의 눈으로 기획하는 미래』 (서울:북스톤, 2021).

[3] 마우로 기엔 지음 / 우진하 옮김, 『2030 축의 전환 새로운 부와 힘을 탄생시킬 8가지 거대한 물결』 (서울: 리더스북, 2020).

[4] 마사 누스바움, 솔 레브모어 지음 / 안진이 옮김 『지혜롭게 나이 든다는 것-현명하고 우아한 인생 후반을 위한 8번의 지적 대화』 (서울: 어크로스, 2018).

[5] Donald Capps 지음 / 오은규 외 옮김,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열 번의 성장-인생의 전 과정을 풍요롭게 다듬어 줄 세대별 이야기』 (서울, 학지사: 2021).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맑은샘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더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베다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감리교회, 상도중앙교회, 삼천포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현교회, 선창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학교,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광교회, 새에덴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안양감리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동동부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중앙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탑동감리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천주교수원교구 호계동 성당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세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햇빛회,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소, GoodTV, IFCJ 가정의 힘(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리서치랩, 동광에스아이, (주)마뜨, 메가리서치,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삼신테크, (주)셀파 C&C,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튼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백산, CNP코퍼레이션(가나다 순)

| 후원 개인 |

강영원, 고영관, 고영수, 고인구, 고재환, 고현권, 구봉관, 구영생, 구정오, 권순홍, 금교성, 김관상, 김기혁, 김동하,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식,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연진, 김영철, 김영훈, 김용섭,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은진, 김재욱, 김주룡, 김주형, 김지한,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호아, 김홍일, 김흥기, 계만식, 나광균, 남기환,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건호, 박노석, 박명규, 박미경, 박상윤, 박세용, 박영철, 박영호, 박우빈,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준하, 박지훈,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철호, 박현욱,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반상명,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백인철, 서연우,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 섭, 송으뜸, 신명자, 신인수, 신지현,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석, 여삼열, 오수철, 우애라, 유성민, 유승우, 유영민,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윤영조, 윤치호, 이경만, 이국희, 이광호,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상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수,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요셉,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조형, 이주일, 이지형, 이창준, 이창현, 이창형, 이춘봉, 이 현, 이현구, 이현식, 이호택, 이훈희, 이희석,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성진, 장우성, 장재영, 장형철, 전병철, 전용림, 전치영, 정기묵, 정부할, 정용철, 정종권, 정종섭, 정 준,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몽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지현일, 차용현, 차원수, 천성환, 최명영, 최상도, 최상헌, 최용기, 최은아, 최 준, 최준혁, 최태영, 최항재, 최현갑, 한병록, 한재용, 한진광,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현풍, 홍혜숙, 황태기, Clara Yoon(가나다순)

| 신규 후원 |

가우진, 자연희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민선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symin83@mhdat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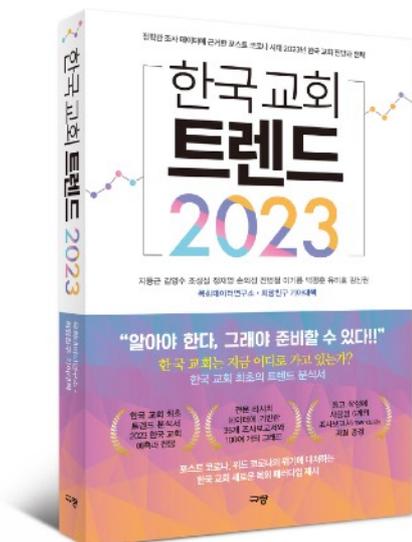
유영민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한국IFCJ가정의힘,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 연구소 소식 |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출간 |

- 목회데이터연구소와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공동으로 조사 데이터에 근거하여 한국교회의 트렌드를 진단하고 예측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책을 6개월 간의 긴 작업을 거쳐 국내 최초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9월 15일에 첫선을 보입니다. 내년도 목회 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록으로 원고 작성을 위한 6개 조사보고서를 드립니다.)
- [넘버즈]는 추석 명절로 인해 한 주는 쉽니다. 다음 호는 9월 20일(화) 오후 4시에 발송됩니다.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